

#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 분석

## - 음운현상을 중심으로 -

정미나\*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태국인 학습자가 음운현상이 나타나는 한국어 단어를 발음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한국어의 음운현상은 철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고립어를 사용하는 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발음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도 태국인 학습자는 음운현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국인 학습자가 음운현상이 나타나는 한국어 단어를 발음할 때 나타나는 오류 유형은 무엇인가? 둘째, 음운현상이 나타나는 한국어 단어를 학습한 직후의 오류율과 10 개월이 지난 후의 오류율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셋째, 음운현상의 오류율이 높아졌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오류율이 낮아졌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실험 결과 구개음화>경음화>격음화>비음화의 순서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3 년과 2024 년에 동일하게 나타났다.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구개음화는 연음처럼 발음하려는 오류가 많았고 경음화·격음화·비음화는 글자 그대로 읽으려는 오류가 많았다. 또한 2023 년보다 2024 년에 평균 오류율이 증가했다. 시험 대상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음운현상 규칙을 배웠지만 그 후로 충분한 복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태국에 있는 주요 대학교 10 곳 중에서 한국어 음성·음운론 수업이 있는 대학은 9 곳이다. 그중에서 4 개 대학은 전공 선택 과목이고 5 개 대학은 전공 필수 과목이다.

\* 나레수안 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어학부, 한국어과, 전임교수, 이메일: minaj@nu.ac.th

하지만 음성·음운론을 전공 필수로 하고 있는 5개 대학 모두 관련 수업은 한 학기에 그쳤다. 대학교에서 음성·음운론 수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태국인 학습자의 발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업을 늘리기 어렵다면 음운현상을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나 연습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교육; 한국어 발음 교육; 음운현상;  
자음 변동

# A Study on Analysis of Thai Students' Mispronunciation of Korean -Focused on Phonological Phenomena-

Mina Jung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errors made by Thai learners when pronouncing Korean words with phonological phenomena. Korean phonological phenomena often differ between spelling and pronunciation, which makes Korean pronunciation particularly difficult for Thai learners, whose native language is an isolating language. Although research in this area has continued,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Thai learners still lack sufficient knowledge of these phonological phenomena.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types of errors occur when Thai learners pronounce Korean words with phonological phenomena? Second, what is the change in the error rate immediately after learning a Korean word with a phonological phenomenon, and how does it compare to the error rate after 10 months? Third, if the error rate has increased, what is the cause, and if it has decreased, what factor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ed that the error rate was highest in the following order: palatalization > hardening > assimilation > descreening. This pattern was consistent in both 2023 and 2024. In terms of error types, many errors

---

\* Lecturer, Korean Section, Department of Eastern Languages, Faculty of Humanities, Naresuan University, e-mail: minaj@nu.ac.th

occurred in the pronunciation of palatalization, with learners often mispronouncing it as "lotus." There were also frequent errors in pronouncing hard, aspirated, and non-acoustic sounds literally. Furthermore, the average error rate increased in 2024 compared to 2023. An analysis of the causes, based on a survey of the test subjects, concluded that the learners had learned the rules of phonological phenomena but did not review them sufficiently afterward. Among the 10 major universities in Thailand, 9 offer Korean speech and phonology classes. Of these, 4 universities offer these courses as elective major subjects, while 5 universities require them as mandatory major subjects. However, all 5 universities with mandatory courses on speech and phonology only offer one semester of related classes. Increasing the number of speech and phonology courses at universities would benefit Thai learners' pronunciation skills. However, if increasing the number of classes is not feasibl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alternative educational methods or practice strategies that can help learners continuously reinforce their knowledge of phonological phenomena.

**Keywords:** Thai Korean learn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phonological phenomena; consonant fluctuations

# 1. 서론

##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태국인 학습자가 음운현상이 나타나는 한국어 단어를 발음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태국인 학습자가 발음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음운현상은 무엇인지와 음운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를 발음할 때 발생하는 오류 유형은 어떠한지 파악할 것이다. 또한 음운현상을 배운 직후의 오류율과 10 개월이 지난 후의 오류율을 측정한 뒤에 두 오류율을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험 대상자의 설문 조사를 통해 발음 교육의 부족한 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 발음은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발음을 정확하게 습득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 화석화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한국어를 전공하는 태국인 학습자가 졸업 후에 희망하는 직업 1 위가 한국 기업 (통역사, 번역가, 비서 겸 통역사), 2 위가 프리랜서 (통역사, 번역가, 한국어 과외 강사), 3 위가 교육기관·학교·학원 (한국어 강사)<sup>1</sup> 등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직업임을 감안한다면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릿코행 (2015, p. 2)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의 한국어 교육은 문법과 어휘 학습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음 교육 교수법 및 한국어 교재의 발음 영역에 대한 교육 내용 등이 부족했다. 또한 분릿코행 (2015, p. 2)에 따르면 최근 태국 내 일부 대학에서는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하여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3~4학년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태국 내에서 한국어 교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발음에 관한 교육과 그 중요

---

<sup>1</sup> 태국 한국 교육원 (kecthai.kr)의 2021년 제 2회 태국 한국어 교육 발전 모색 세미나 자료를 참조

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 허용 외 (2005, p. 117)에서 한국어의 음운현상은 복잡하고 대부분 음운현상의 영향을 받기 전의 형태를 그대로 고정하여 쓰기 때문에 철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음운현상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태국에서도 발음, 특히 음운현상에 대한 교육이 이른 시기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국인 학습자가 음운현상이 나타나는 한국어 단어를 발음할 때 나타나는 오류 유형은 무엇인가?

둘째, 음운현상이 나타나는 한국어 단어를 학습한 직후의 오류율과 10 개월이 지난 후의 오류율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셋째, 음운현상의 오류율이 높아졌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오류율이 낮아졌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 1.2 선행연구

학술연구정보서비스<sup>2</sup>에 ‘한국어’와 ‘태국’으로 검색하면 291 개의 학위 논문이 나온다. ‘발음’으로 재검색을 한 결과 42 편이 나왔고 다시 ‘음운현상’으로 재검색을 한 결과 15 편의 논문이 검색됐다. 이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ttanakamchorn Punnada (2024)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한국어 단어의 오류를 측정했다. 비음화가 나타나는 단어는 17개, 유음화가 나타나는 단어는 12개,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단어는 11개였다. 총 40개의 단어 중에서 오류율이 50% 이하인 단어는 1개였고 39개의 단어는 오류율이 50% 이상이었다. 오류 유형은 음운현상이 나타나기 전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음운현상에 대

---

<sup>2</sup> RISS (<http://www.riss.kr/index.do>)

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Piraya Techaciroj (2019)은 비음화와 유음화가 나타나는 단어의 지각률과 오류율의 상관 관계를 측정했다. 비음화 단어는 20개, 유음화 단어는 10개였다. 또한 실험 대상자를 숙달도에 따라 초급과 중급, 고급으로 나눴다. 실험 결과 초급>중급>고급 순으로 오류율이 높게 나왔으며, 초급은 상관 관계가 없지만 중급과 고급은 상관 관계가 있다고 나왔다. 이는 학습 기간이 길수록 오류율이 적게 나온다는 것과 음운현상의 규칙을 인지하고 있으면 발음 오류가 적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보람 (2015)에서는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가 나타나는 한국어 단어의 오류를 측정했다. 비음화 단어는 18개, 유음화 단어는 12개, 경음화 단어는 20개, 격음화 단어는 12개였다. 실험 결과 비음화>유음화>격음화>경음화 순으로 오류율이 높게 나왔다. 오류 유형은 음운현상이 나타나기 전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고립어를 사용하는 태국인 학습자의 경우 음운현상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분릿코헝 (2015)에서는 발음 습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거주 경험이 있지만 한국어 음성·음운론 학습 경험은 없는 실험 대상자와 한국 거주 경험이 없지만 한국어 음성·음운론 학습 경험은 있는 실험 대상으로 나누어 지각 실험과 산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한국 거주 경험이 없지만 한국어 음성·음운론 학습 경험은 있는 실험 대상자가 지각 실험과 산출 실험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한국어 음성·음운론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박민희 (2014)는 학습 기간별로 1~2년과 3~4년으로 나누어 비음화, 유음화, 격음화, 경음화, 구개음화의 오류를 측정했다. 실험 결과, 학습 기간이 길수록 모든 음운현상에서 오류율이 적게 나타났으며 격음화>비음화>경음화>유음화>구개음화 순으로 두 실험 대상자 간의 오류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오류율의 차이가 가장 적은 구개음화가 학습 기간이 길어도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음운현상이 나타나는 한국어 단어의 오류 유형은 음운현상이 나타나기 전의 형태가 가장 많다. 오류 원인은 음운현상에 대

한 지식 부족 때문이다. 음운현상 규칙을 인지하고 있으면 오류율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음성·음운론 교육이 필요하다.

## 2.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 실험

### 2.1 실험 방법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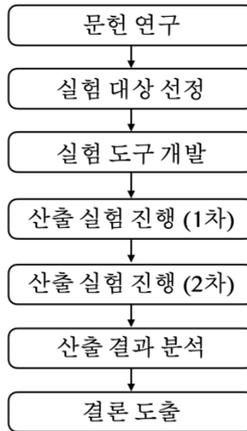


그림 1. 실험 절차

실험 절차는 문헌 연구, 실험 대상 선정, 실험 도구 개발, 산출 실험 진행, 산출 결과 분석, 결론 도출의 순서로 진행됐다. 실험 대상은 연구자가 수업을 하고 있는 나레수안 대학교(Naresuan University) 1 학년 학생 40 명이였다. 실험 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발음 진단지를 사용했다. 산출 실험은 강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녹음 장치는 삼성 Galaxy S20 FE 를 사용했다. 연구자와 실험 대상자가 1:1 로 만나 녹음을 했고 녹음은 연구자가 진행했다. 1 차 산출 실험은 2023 년 3 월에, 2 차 산출

실험은 2024 년 1 월에 진행했으며 실험 대상자는 동일했다. 산출 실험을 통해 음운현상별 오류율과 학습 기간별 오류율을 측정하여 결론을 도출했다.

## 2.2 실험 도구 개발

실험 도구는 김중섭 외(2017)에서 제시한 ‘발음 영역의 범주와 목록’에 나온 음운현상과 본 연구의 실험 대상자가 ‘이화 한국어 교재’에서 학습한 음운현상 중에서 일치하는 항목으로 선정했다. 각각의 음운현상을 음운현상이 나타나는 환경별로 세분화하여 단어를 2 개씩 선정했으며 단어를 선정한 기준은 김중섭 외(2017)에서 제시한 음운현상별 단어와 실험 대상자가 학습한 이화 한국어 교재에서 1 차로 선정하고 부족한 단어는 ‘2017 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적용 연구 (4 단계) 어휘 문법 등급 목록’에서 2 차로 추가하여 선정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음운현상별 환경과 단어 목록

음운현상	환경	단어
비음화	받침 ‘ㄱ’은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발음된다.	먹는[멍는], 작년[장년]
	받침 ‘ㄱ’은 비음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된다.	국물[궁물], 한국말[한궁말]
	받침 ‘ㄷ’은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듣는[튼는], 묻는[문는]
	받침 ‘ㄷ’은 비음 ‘ㅁ’ 앞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만며느리[만며느리]
	받침 ‘ㅂ’은 비음 ‘ㄴ’ 앞에서 ‘ㅁ’으로 발음된다.	입는[임는], 잡는[잠는]
	받침 ‘ㅂ’은 비음 ‘ㅁ’ 앞에서 ‘ㅁ’으로 발음된다.	십만[심만], 입문[임문]

	받침 ‘ㄴ’ 뒤에 이어지는 ‘ㄹ’은 비음으로 발음된다.	의견란[의견난], 생산량[생산냥]
	받침 ‘ㄹ’ 뒤에 이어지는 ‘ㄹ’은 ‘ㄴ’으로 발음된다.	심리[심니], 음력[음녁]
	받침 ‘ㅇ’ 뒤에 이어지는 ‘ㄹ’은 ‘ㄴ’으로 발음된다.	대통령[대통령], 동료[동료]
구개음화	받침 ‘ㄷ’ 뒤에 모음 ‘이’가 오면 ‘ㅈ’로 발음된다.	굳이[구지], 미닫이[미다지] 만이[마지], 해돋이[해도지]
	받침 ‘ㅌ’ 뒤에 모음 ‘이’가 오면 ‘ㅊ’로 발음된다.	같이[가치], 붙이다[부치다] 밭이[바치], 끝이다[끄치다]
격음화	‘ㅎ’ 뒤에 오는 자음 ‘ㄱ’은 ‘ㅋ’으로 발음된다.	농고[노코], 어떻게[어떠케]
	‘ㅎ’ 뒤에 오는 자음 ‘ㄴ’은 ‘ㄸ’으로 발음된다.	녕다[너타], 좋다[조타]
	‘ㅎ’ 뒤에 오는 자음 ‘ㄷ’은 ‘ㅌ’으로 발음된다.	쌍지[싸치], 좋지[조치]
	받침 ‘ㄱ’ 뒤에 ‘ㅎ’이 오면 ‘ㅋ’으로 발음된다.	먹히다[머키다], 축하[추카]
	받침 ‘ㄴ’ 뒤에 ‘ㅎ’이 오면 ‘ㄸ’으로 발음된다.	만형[마텅]
	받침 ‘ㄹ’ 뒤에 ‘ㅎ’이 오면 ‘ㄹ’으로 발음된다.	가입하다[가이파다], 입학[이팍]
	받침 ‘ㄷ’ 뒤에 ‘ㅎ’이 오면 ‘ㅌ’으로 발음된다.	꽃히다[꼬치다], 짓히다[저치다]
경음화	받침 ‘ㄱ’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독감[독감], 책상[책쌍]
	받침 ‘ㄷ’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덜고[덜꼬], 뺨대다[뺨때다]

받침 ‘ㅂ’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입국[입꺨], 접시[접씨],
어간의 받침 ‘ㄴ’ 뒤에 이어지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신다[신따], 안다[안따].
어간의 받침 ‘ㄹ’ 뒤에 이어지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줄게[줄께], 할게[할께]
어간의 받침 ‘ㄱ’ 뒤에 이어지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답다[답따], 참다[참따]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이어지는 ‘ㄷ, ㅅ,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갈등[갈똥], 절도[절또]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이어지는 ‘ㄷ, ㅅ,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갈색[갈쌉], 실수[실쑤]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이어지는 ‘ㄷ, ㅅ,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발전[발쩐], 일정[일쩡]

음운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이지만 ‘만머느리’, ‘만형’처럼 대상 단어가 적거나 ‘의견란’, ‘생산량’, ‘딛고’, ‘뺨대다’ 처럼 고급 수준에 해당하는 단어만 있는 환경은 제외했다. 또한 ‘갈등’, ‘절도’, ‘발전’, ‘일정’ 처럼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환경도 제외했다. 하지만 ‘갈색’과 ‘실수’는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환경이지만 실험 대상자가 이화 한국어 교재에서 학습한 단어라 포함했다. 또한 음운현상별로 대표 단어가 많지 않은 구개음화의 ‘굳이’나 ‘만이’, 격음화의 ‘꽃히다’, ‘젓히다’는 중·고급에 해당하는 단어지만 포함했다. 음운현상별 실험 도구 개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음운현상별 실험 도구 개수

음운현상별 실험 도구 개수(개)	
비음화	14
구개음화	8
격음화	12
경음화	12

### 3.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 분석

#### 3.1 발음 오류 분석

##### 3.1.1 비음화

표 3

비음화 오류율

음운현상	환경	오류율	
		2023년	2024년
비음화	받침 ‘ㄱ’은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발음된다.	3.8%	10.0%
	받침 ‘ㄱ’은 비음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된다.	2.5%	17.5%
	받침 ‘ㄷ’은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8.8%	26.3%
	받침 ‘ㅂ’은 비음 ‘ㄴ’ 앞에서 ‘ㄹ’으로 발음된다.	12.5%	21.3%

	받침 ‘ㅂ’은 비음 ‘ㅁ’ 앞에서 ‘ㅁ’으로 발음된다.	10.0%	21.3%
	받침 ‘ㅁ’ 뒤에 이어지는 ‘ㄹ’은 ‘ㄴ’으로 발음된다.	23.8%	11.3%
	받침 ‘ㅇ’ 뒤에 이어지는 ‘ㄹ’은 ‘ㄴ’으로 발음된다.	16.3%	8.8%
<b>평균</b>		<b>11.1%</b>	<b>16.6%</b>

비음화 14 개 단어의 평균 오류율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11.1%이고 2024년에는 16.6%로 오류율이 5.5% 증가했다. 비음화가 나타나는 7 개의 환경 중에서 5 개의 환경에서 오류율이 증가했다. 오류 유형은 음절 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글자 그대로 읽으려는 오류가 가장 많았다. 오류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단어는 ‘듣는[듣는]’과 ‘묻는[묻는]’이다.

### 3.1.2 구개음화

표 4

구개음화 오류율

음운현상	환경	오류율	
		2023년	2024년
구개음화	받침 ‘ㄷ’ 뒤에 모음 ‘이’가 오면 ‘ㅈ’로 발음된다.(2음절)	41.3%	45.0%
	받침 ‘ㄷ’ 뒤에 모음 ‘이’가 오면 ‘ㅉ’로 발음된다.(3음절)	35.0%	38.8%
	받침 ‘ㅌ’ 뒤에 모음 ‘이’가 오면 ‘ㅊ’로 발음된다.(2음절)	11.3%	12.5%
	받침 ‘ㅌ’ 뒤에 모음 ‘이’가 오면 ‘ㅑ’로 발음된다.(3음절)	13.8%	18.8%

평균	25.3%	28.8%
----	-------	-------

구개음화 8 개 단어의 평균 오류율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25.3%이고 2024년에는 28.8%로 오류율이 3.5% 증가했다.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4 개의 환경 중에서 모든 환경에서 오류율이 증가했다. 오류 유형은 연음처럼 발음하려는 오류가 가장 많았다. 오류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단어는 ‘불이다[부치다]’와 ‘끝이다[끄치다]’이다.

### 3.1.3 격음화

표 5

격음화 오류율

음운현상	환경	오류율	
		2023년	2024년
격음화	‘ㅎ’ 뒤에 오는 자음 ‘ㄱ’은 ‘ㅋ’으로 발음된다.	11.3%	8.8%
	‘ㅎ’ 뒤에 오는 자음 ‘ㄷ’은 ‘ㅌ’으로 발음된다.	20.0%	20.0%
	‘ㅎ’ 뒤에 오는 자음 ‘ㅈ’은 ‘ㅊ’으로 발음된다.	46.3%	55.0%
	받침 ‘ㄱ’ 뒤에 ‘ㅎ’이 오면 ‘ㅋ’으로 발음된다.	2.5%	2.5%
	받침 ‘ㄴ’ 뒤에 ‘ㅎ’이 오면 ‘ㅆ’으로 발음된다.	1.3%	2.5%
	받침 ‘ㅈ’ 뒤에 ‘ㅎ’이 오면 ‘ㅊ’으로 발음된다.	15.0%	25%
<b>평균</b>		<b>16.0%</b>	<b>19.0%</b>

격음화 12 개 단어의 평균 오류율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16.0%이고 2024년에는 19.0%로 오류율이 3.0% 증가했다. 격음화가 나타나는 6 개의 환경 중에서 5 개의 환경에서 오류율이 같거나 증가했다. 오류 유형은 음절 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읽으려는 오류가 가장 많았다. 오류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단어는 ‘꽃히다[꼬치다]’와 ‘젓히다[저치다]’이다.

### 3.1.4 경음화

표 6

경음화 오류율

음운현상	환경	오류율	
		2023년	2024년
경음화	받침 ‘ㄱ’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8.8%	12.5%
	받침 ‘ㅂ’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38.8%	46.3%
	어간의 받침 ‘ㄴ’ 뒤에 이어지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30.0%	52.5%
	어간의 받침 ‘ㄹ’ 뒤에 이어지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5.0%	5.0%
	어간의 받침 ‘ㄹ’ 뒤에 이어지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12.5%	51.3%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이어지는 ‘ㄷ, ㅅ,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8.8%	1.3%
<b>평균</b>		<b>17.3%</b>	<b>28.2%</b>

경음화 12 개 단어의 평균 오류율을 살펴보면 2023 년에는 17.3%이었으나 2024 년에는 28.2%로 오류율이 10.9% 증가했다. 경음화가 나타나는 6 개의 환경 중에서 5 개의 환경에서 오류율이 같거나 증가했다. 오류 유형은 음절 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글자 그대로 읽으려는 오류가 가장 많았다. 오류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단어는 ‘답다[답따]’와 ‘참다[참따]’였다.

오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국인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음운현상은 구개음화>경음화>격음화>비음화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2023 년과 2024 년에 동일하게 나타났다.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구개음화는 연음처럼 발음하려는 오류가 많았고 경음화·격음화·비음화는 글자 그대로 읽으려는 오류가 많았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 모든 음운현상에서 2023 년보다 2024 년에 평균 오류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다.

### 3.2 설문조사 분석

2 차 산출 실험을 진행한 후에 실험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 질문은 총 3 개였다. 실험 대상자가 느끼기에 본인의 발음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는지, 대학교에서 하는 발음 교육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타 의견이었다. 1 번과 2 번 질문은 객관식으로 선택을 한 후에 주관식으로 실험 대상자의 의견을 작성하도록 했다. 주관식은 실험 대상자의 자세한 답변을 받기 위해 한국어가 아닌 태국어나 영어로 작성하도록 했다.

### 3.2.1 발음 관련

1) 1년 전에 같은 발음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본인 발음 실력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เราทดสอบการออกเสียงเดียวกันเมื่อปีที่แล้ว เทียบกับตอนนั้นแล้ว คิดว่า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ออกเสียงของตัวเองตอนนี้เปลี่ยนไปเป็นอย่างไ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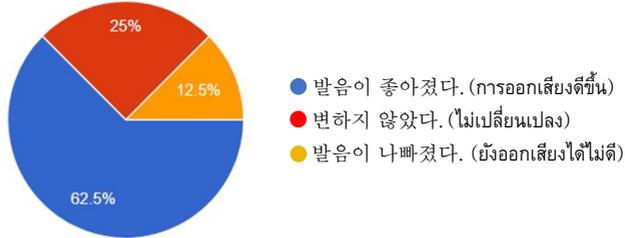


그림 2. 발음 관련 그래프

첫 번째 질문은 실험 1 차와 2 차 후 본인의 발음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시험 대상자의 62.5%가 발음이 좋아졌다, 25%는 변하지 않았다, 12.5%는 발음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산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음운현상의 오류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대상자의 62.5%가 발음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발음이 좋아졌다고 답변한 실험 대상자의 의견을 살펴보면 1년 전보다 지식이 늘었다, 말하기 수업을 들었다, 한국어 발음 규칙을 배웠다, 단어에 익숙해졌다,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한국 드라마나 틱톡 또는 릴스를 자주 봤다, 한국 노래를 자주 들었다, 1년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다고 답변했다.

반면, 발음이 전보다 나빠졌다고 답변한 실험 대상자의 의견을 보면 수업 시간에만 연습하고 복습하지 못했다, 발음 연습을 자주 하지 않았다, 발음 규칙을 외우기 어렵다, 발음 규칙이 헷갈린다, 발음 규칙을 알고 있지만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헷갈린다, 발음 규칙을 알고 있지만 발음이 잘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3.2.2 발음 수업 관련

2) 대학교에서 하는 발음 교육 시간 (회화 수업 포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คุณคิดว่าการเรียนการออกเสียงในมหาวิทยาลัย (รวมถึงชั้นเรียนสนทนา) มีเพียงพอหรือไ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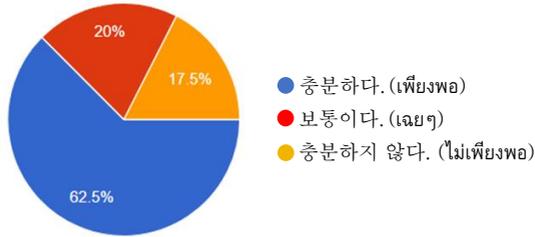


그림 3. 발음 수업 관련 그래프

두 번째 질문은 대학교에서 하는 발음 교육 시간에 대한 것이었다. 나레수안 대학교(Naresuan University)는 1 학년 1 학기에 발음 수업이 있고 1 학년부터 2 학년까지 말하기 수업이 있다. 62.5%의 실험 대상자가 충분하다고 했으며 20%의 실험 대상자는 보통이라고 했다. 17.0%의 실험 대상자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충분하다고 답변한 실험 대상자의 의견을 살펴보면 발음 수업도 있고 말하기 수업도 있다, 발음 수업 시간에 발음 규칙에 대해 자세히 배웠다, 말하기 수업 시간에도 발음을 배웠다, 1 학년 1 학기 때 발음 수업을 들어서 말하기 수업에도 도움이 됐다, 분반을 해서 학생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배웠다고 답변했다.

반면,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한 실험 대상자의 의견을 살펴보면 교양 수업을 줄이고 전공 수업을 늘려야 한다, 발음 수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수업 시간에 발음을 많이 연습하지 못했다, 졸업 후에 직업을 갖기 위해 발음 연습을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ㅅ’와 ‘ㅆ’를 구분하기 어렵다, ‘ㅎ’ 받침을 발음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발음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수업 시간에 더 많이 연습하고 싶다,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읽기 시험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한 명씩 책을 읽게 하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2023 년보다 2024 년에 평균 오류율이 증가한 원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음운현상 규칙을 배운 직후에는 실험 대상자가 그 규칙을 기억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오류율이 낮게 나타났고 10 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규칙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율이 증가했다고 보여진다. 실험 대상자가 설문조사에서 답변했듯이 한국어 음운현상 발음 규칙은 헛갈리고 외우기 어렵다. 그러므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복습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한국어 음성·음운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화현 (2019, p. 101)에 따르면 태국에 있는 주요 대학교 10 곳 중에서 한국어 음성·음운론 수업이 있는 대학은 9 곳이다. 그중에서 4 개 대학은 전공 선택 과목이고 5 개 대학은 전공 필수 과목이다. 하지만 음성·음운론을 전공 필수로 하고 있는 5 개 대학 모두 관련 수업은 한 학기에 그쳤다<sup>3</sup>. 그러므로 대학교에서 2 학기 이상 음성·음운론 수업을 한다면 태국인 학습자의 음운현상 오류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수업을 늘리기 어렵다면 음운현상을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나 연습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4. 결론

서론에서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태국인 학습자가 음운현상이 나타나는 한국어 단어를 발음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한국어의 음운현상은 철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고립어를 사용하는 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발음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도 태국인 학습자가 음운현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태국인 학습자의 오류율을 측정하여 분석한 뒤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sup>3</sup> 송클라대학교 팻파니 캠퍼스(전필), 부라과대학교(전선), 쉐라빠견대학교(전선), 시나카린위롯 대학교(없음), 쯔라퐁건대학교(전필), 허간카타이대학교(전선), 마하사라캄대학교(전필), 치앙마이 라차팟 대학교(전필), 나레수안대학교(전필), 치앙라이 라차팟 대학교(전선), 안화현 (2019, p. 100)

한국어 발음 오류 실험에서는 실험 방법과 대상 그리고 실험 도구 개발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험 방법은 본 연구자가 개발한 발음 진단지를 사용하여 실험 대상자의 발음을 녹음한 후에 분석하는 것이었다. 실험 대상은 본 연구자가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교의 1 학년 학생 40 명이였다. 실험 도구인 발음 진단지는 김중섭 외 (2017)에서 제시한 음운현상과 실험 대상자가 학습한 음운현상 중에서 일치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개발했다. 비음화·구개음화·격음화·경음화가 나타나는 단어 46 개가 진단 대상이였다.

한국어 발음 오류 분석에서는 앞서 제시한 4 개 음운현상의 오류율을 측정했다. 그 결과 모든 음운현상에서 2023 년보다 2024 년에 평균 오류율이 증가했다. 평균 오류율이 증가한 원인으로 음운현상 규칙을 배웠지만 그 후로 충분한 복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대학교에서 음성·음운론 수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태국인 학습자의 발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업을 늘리기 어렵다면 음운현상을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나 연습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가 실험을 설계하여 연구를 진행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 더 다양한 음운현상을 실험 도구에 넣지 못한 점이나 더 많은 실험 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음운현상을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나 연습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 연구가 태국 현지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음운현상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교육 방법이나 연습 방법은 후속 연구에서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참고 문헌

김보람. (2016). *한국어 자음 연쇄 발음 분석 및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김중섭 외. (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박민희. (2014).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와 모국어 간섭현상의 연관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배주채. (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분릿코행. (2015).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발음교육 연구: 한국어 발음 지각 및 산출 실험을 활용하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 학교.
- 안화현. (2019). *태국 내 대학교의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이진호. (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서울: 아카넷.
- 태국 한국 교육원. (2024). *2021년 제 2회 태국 한국어 교육 발전 모색 세미나*. Retrived 10 April 2024, from <https://kecthai.kr/index.php>
- 허용, 김선정.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교육론*. 서울: 박이정.
- 허용 외. (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서울: 박이정.
- Pattanakamchorn, P. (2024).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음운현상 학습에서 발생한 오류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RISS. (n.d.).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etrived 15 April 2024, from <http://www.riss.kr/index.do>
- Techaciroj, P. (2019).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음 동화 발음 습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Received: May 14, 2024

Revised: July 9, 2024

Accepted: December 17, 2024